

해남군 '출산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

장려금·난임시술비·산후관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등
40억원 들여 40여개 사업 추진



해남군이 이달부터 보건소 1층에서 '행복 출산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신·출산가정을 위한 40여 개의 지원사업 등을 안내한다. 지역민이 센터 상담을 받는 모습. <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이달부터 '행복 출산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신·출산가정 지원에 나선다. 출산 지원센터는 해남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 마련됐으며, 지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남군은 저출생을 극복하고 임신·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40억1200만원 예산을 들여 총 4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 출산 지원센터는 10개 임신지원 사업과 첫 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등 25개의 출산지원 사업 등을 안내한다. 해남군은 지난 2018년부터 난임시술을 위한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해왔다. 이는 정부가 내년 부터 지원하기로 한 난임시술비 지원 대책보다 앞서 시행한 정책이다. 또 해남군은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26만원을 지원해왔다. 지난 2015년부터는 분만 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5480명에게 10억4425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신생아 가정(첫째 320만원)의 경우 218명을 대상으로 1억8680만원을 지급했다. 출산 전후 임신부를 위한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와 출산맘(MOM) 건강회복 운동비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며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를 포함한 모든 출산 가정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열흘, 최장 15일까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챙기며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청소 관리 등도 돕는다.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2019년 31명, 2020년 37명, 2021년 11명, 2022년 7명 등이 이용해왔다. 또 해남군은 출생 후 3개월부터 3년 이내의 출산 여성의 건강 회복을 위해 지역 운동시설 이용료를 월 최고 10만원씩 석 달 동안 지원한다. 출산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은 수영, 요가, 에어로빅, 줌바댄스 등이 있다. 해남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과 '임산부 전용 안전띠 대여'가 있다. 내년에도 임신·출산 관련 신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임신부 자료를 통해 지원 누락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남을 만들기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문 산후조리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를 포함한 모든 출산 가정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열흘, 최장 15일까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챙기며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청소 관리 등도 돕는다.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2019년 31명, 2020년 37명, 2021년 11명, 2022년 7명 등이 이용해왔다. 또 해남군은 출생 후 3개월부터 3년 이내의 출산 여성의 건강 회복을 위해 지역 운동시설 이용료를 월 최고 10만원씩 석 달 동안 지원한다. 출산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은 수영, 요가, 에어로빅, 줌바댄스 등이 있다. 해남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과 '임산부 전용 안전띠 대여'가 있다. 내년에도 임신·출산 관련 신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임신부 자료를 통해 지원 누락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남을 만들기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강진군 주택 신축 전입자에 3000만원 지원

지원 조례 제정...대상자 모집
인구정책 서비스 시스템도 개설

강진군이 집을 새로 지어 전입하는 주민에게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하는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강진군은 지난달 26일 신규 전입자와 귀농·귀촌인을 유입하기 위한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를 통해 강진군은 인구 5만 달성을 위한 인구 유입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택 신축 신규 전입자에게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5년 이내 신규 전입자가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주택 건축을 완료했을 때, 주택 감정평가를 거쳐 강진군이 감정평가액의 50%,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진군은 해당 지원사업 공고문을 오는 11일 전까지 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올릴 예정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강진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에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강진군 주택 신축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돼 9월 말에 개별 통보된다. 강진군은 이달 중 전입자 등이 강진군 귀농·귀촌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인구정책 원스톱 서비스 통합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진군은 이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은지 사업'을 추진하고 '푸소' 운영을 위한 건물 개설편비·신축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진군 강진군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을 통해 빈집정비, 신규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전입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장흥군 복지급여 신규 수급자 503명 발굴

월 최대 62만3000원 생계비 지급

장흥군이 올해 상반기 맞춤형 복지급여 신규 수급자 503명을 추가 책정했다고 3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생계 곤란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말한다. 장흥군은 지역민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신규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기초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미만, 재산가액 9억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1인 기준 최대 월 62만3000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기초의료급여는 의료비 본인 부담액을 낮춰주

는 제도이고, 기초주거급여는 수급자 명의 주택을 노후도 평가한 뒤 집수리를 해준다. 3년에서 7년마다 1회 최고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차 가구면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료(월세)를 현금 지원받는다. 초·중·고교 재학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구매 비용,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지원을 해주는 기초교육급여와 교육비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제도 기준에 대한 상담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올해 맞춤형 복지급여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돼 많은 지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구례군 매천도서관 '그림책 읽어주는 할머니' 교육

구례군매천도서관이 7일부터 9월11일까지 '그림책 읽어주는 할머니'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대상은 만 60세 이상 여성으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도서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그림책 읽어주는 할머니' 양성 교육은 동화책 읽어주기, 책 놀이 프로그램 등 동화책을 매개로 한 놀이프로그램이다. 총 6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수료증을 받고 매천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매천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구례군매천도서관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매천도서관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집 및 국립공원 숲 학교 프로그램 등에서 그림책 읽어주는 할머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 여문 문화의 거리 바닥분수대 시원한 물 뿜기



여수시 여문 문화의 거리 바닥분수대 2곳이 운영을 재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운영을 중단했으나, 이달 운영 재개를 위해 분수대 노후 부품 교체 등 정비를 모두 마치고 지난 2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여문 바닥분수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민과 관광객에 시원한 힐링 쉼터를 제공하게 된다. <여수시 제공>

광양시 체육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보고회

전문·생활체육 등 6대 과제 담아

광양시는 최근 '광양시 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종합계획 내용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시 체육회장,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등 체육회 관련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현대산업정보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에서는 광양 체육발전을 위한 6대 전략 과제를 담는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분야별 발전 전략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체육 시설 특화전략이 마련된다. 광양 동부권(중마권)에는 시민 생활체육시설

중심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서부권(광양읍 권)에는 전문체육 중심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또 전지훈련과 접목한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공공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스포츠타운화'에 대한 다양한 국내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장애인 체육시설과 체육행사 관련 숙박시설 확충 방안도 모색했다. 연구용역은 오는 9월 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설 확충 또는 보수 등 단기 사업은 내년 사업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중·장기 사업은 시민·동호인 등과 논의를 거쳐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